2013.06
Webzine Vol.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Webzine 2013.06 Vol.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CONTENTS

03 MESSAGE 메시지
-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지역상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05 HOT ISSUE 핫이슈
- GFEZ, 해양플랜트전문기업 3개사와 MOU체결
- 신대배후단지 내 명품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박차
- GFEZ, (사)한국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와 MOU체결
-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 광양경제청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시스템 구축
- 일본 투자기업 Lee-Tech Inc. 율촌자유무역지역 내 추가 투자 협약 체결

08 INVEST IN GFEZ GFEZ 지구소개
- 철강 · 석유화학 등 최적의 산업 Cluster 구축 율촌지구
- 율촌자유무역지역 잔여 공장부지 입주 희망업체 모집공고

13 PHOTO NEWS 포토뉴스
- GFEZ 주요 포토뉴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희 봉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지역상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 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이다. 그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토대로 한 지역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이 시대의 핵심과제가 되었으며 상생발전 협력방안은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발전의 주요 내용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포괄적 개방적 트랜드에 의한 신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정부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제정을 통해 대도시 연합공동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로 네 개의 대도시연 합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도시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논리에 있어 지역 간‘경쟁·갈등형’구도에서‘협력·소통형 지역 상생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간, 각 도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지역과 해외도시 간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파트너십 구축의 성공사례로서는 부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부산항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부산항발전협의회”“부산항 경쟁력 촉진 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등 민·관·단체 다섯 개가 일찍이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중앙정책에 건의되고 있다.

부산지역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인 네트워킹과 거버넌스가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다. 부산은 해외 도시와의 연계 협력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2009년 8월 28일 동북아 최초로 23개 추진사업에 대해 국경을 넘는 초광역 경제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간 자매시장 제휴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수산시장 교류 촉진, 공동 브랜드 창설 등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부산과 후쿠오카시는 두 도시 간 경제협력을 한국의 동남권과 일본 큐슈지역의 경제협력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시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광양만권 지역은 지역간의 연계와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다행히 광양만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 광양만권에서도 여수·순천·광양시와 유관기관이 지역 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난 1월 31일"광양만권발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발전의 주요 내용도지 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것이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포괄적 개방적 트랜드에 의한신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 9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 운영된다. 협의회에서는 항만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지역 현안 협의, 관련기관 단체 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 형성 등 지역발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 운영은 윤번제로 주관하게 되며, 2개월마다 한차례 정례회를 갖고, 협의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우리청 주관으로 개최된 지난 4월 24일의 두 번째 정례회, 간담회에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광양·부산항 중심의 투포트 항만정책에서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 계획을 내세운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졌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에 공동 대응하여'광양항 살리기'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기로 중점 논의하였고, 또한 광양만권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마케팅의 적극적인 추진등 현안들이 논의 되었다.

앞으로 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관·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대거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육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되어야 이지역의 경제와 정치발전이 기약 될 수 있을것이다.

"광양만권발전협의회"의 발족은 광양만권의 연계협력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에 가속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계기로 자치역량 강화와 획기적인 상생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기관·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희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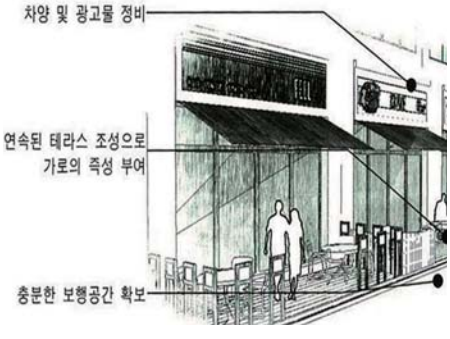
GFEZ, 해양플랜트전문기업 3개사와 MOU체결

하동지구에 2016년까지 99천㎡ 규모, 300억투자, 150명 고용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5.24일(금) 해양플랜트전문기업 3개사와 세계최고의 해양플랜트 RDE&P(연구개발, 교육, 생산 결합형)클러스터를 조성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하 GFEZ)하동지구의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2016년까지 99천㎡(3만평)규모의 공장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4월 29일 광양경제청과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와의 「투자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중공업(주), 미래인더스트리(주), 대명PMC(주) 3개사가 2016년까지 총300억원을 투자하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99천㎡(3만평)부지에 해양플랜트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150명 이상을 고용하며, 광양경제청은 공장건립 및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인센티브 등 행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신대배후단지내 명품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박차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물 설계 · 광고물 제작설치 비용의 50% 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주관 디자인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신대배후단지 내 명품거리 주변을 자연과 사람, 건축물이 어우리는 품격있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물과 간판에 대하여 41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업은 약 770m에 이르는 명품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대지에 2012년 ~ 2013년 건축 허가(준공)된 건축물과 간판 중 연중 수시 신청받아 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아름다운 건축물과 간판에 대하여 건축 설계비, 간판 제작·설치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명품거리 주변을 보행자 중심의 푸르름이 가득한 가로공간인 녹도의 개념을 도입한 웰빙도로와 1층 층고가 4.5m, 투시형 벽면, 전면공지에 테라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저층부를 활용한 상점들이 들어서면 서울 덕수궁과 경향신문사의 길로 낭만이 가득한 정동길과 분당의 백궁길을 합하여 놓은 것과 같은 찾아오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이다.

광양만권자유구역청에서는 명품거리 주변을 시작으로 점차 신대배후단지 전체 사업 확대 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비 및 광고물 제작·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대배후단지 이미지 향상과 명품거리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FEZ,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와 MOU체결

하동 갈사산단, 165천㎡ 규모, 15개사 1,000억원 투자 계획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를 조성중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해양플랜트 전문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규태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장,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유행 하동군수, 하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류현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회원사의 투자증진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협력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투자정보 교환 및 투자기업 발굴과 알선,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 협회 회원사가 갈사만조선산업단지내에 입주시 희망지역에 집적화 되도록 노력하고 분양가격과 사용가능한 부지조성 시기 등은 상호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육지부에 165천㎡(5만평) 규모로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회원사 15여개사 유치를 통해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월24일 개별투자기업별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양항 경쟁력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광양항 경쟁력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4월 25일(15: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상호업무협력 MOU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광양항 관련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광양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발굴, 물동량 및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상호업무협력 MOU체결에 이어,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방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된 물류심포지엄('13. 3. 21.)에 대한 결과보고와 '13년도 광양항 통합마케팅 활동에 대한 설명,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내외업체의 투자유치 활동과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청을 비롯한 광양항 관련기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광양항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광양경제청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시스템 구축

해양플랜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RDE&P(Research, Development, Education, Production)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선구적 역할을 수행 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광양경제청 하동사무소(소장: 제윤억)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9일(금) 광양청 본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정책자문위원회는 해양플랜트 분야에 8명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R&D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립화 및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방안강구,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운영방안 모색, 해외 선진기관과 기술협력 체계 구축 및 국내외 신기술 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위원들은 4월 19일 오후 11시 광양경제청 회의실에서 이희봉 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광양경제청 하동사무소는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하동지구해양플랜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은 물론 기업유치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실현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투자기업 Lee-Tech Inc. 율촌자유무역지역내 추가 투자 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주)리테크 MOA체결

율촌자유무역지역내 일본 투자기업인 (주)리테크(이은형 대표)는 4월 16일 오전 11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에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윤우열 원장)과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18,000㎡ 부지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정밀기계 및 부품 제조 공정을 갖춘 제2공장 추가 설립에 따른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지난 2011년 3월, 12,000㎡의 부지에 제1공장을 설립, 첨단기계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일본 등에 전량 수출하고 있는 (주)리테크는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정밀기계 및 부품을 제조하는 라인을 가동함으로써 인근에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서 부품 조달 및 기술 협력을 가능케하여 일본의 앞선 기술력을 한국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인프라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광양만권을 우수한 품질의 정밀기계 및 부품 생산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리테크 이은형 대표는 이 지역 출신으로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평소에도 조국과 고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체득한 경영이념과 기술력을 후배들이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철강, 석유화학 등 최적의 산업 Cluster 구축
율촌지구

규모-27.86㎢ / 사업비-37,664억원 / 개념-생산기능

■ 철강 등 기반산업 관련 공장유치

■ 여수공항 및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 유도 기능 유치

율촌지구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지인 광양항과 단일공장 조강능력 세계 1위의 POSCO 광양제철소,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세계 5위의 여수국가산단, 50년간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는 율촌 자유무역지역이 인접해 있어 글로벌 수준의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뛰어난 입지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유수의 조선업체를 비롯한 철강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계부품, 전자부품, 중소조선업, 철도차량 정비 및 관련업을 유치하는 등 노동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분	율촌 I 산단	율촌 II 산단	율촌 III 산단
조성면적	9.17㎢	3.79㎢	9.76㎢
사업기간	1994 ~ 2015년	2010 ~ 2020년	2016 ~ 2020년
주요 추진사항	분양실적 : 4.88㎢(80%) 입주기업 : 88개 업체	호안축조 : 23.5㎢ 준설토 : 47백만㎥	개발계획수립용역(`04) 사업시기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분양/임대가	율촌 I 산단 분양가(㎡당) 139,226원		

광양만권의 중추적 생산기지와 지역혁신거점허브, 율촌 제Ⅰ일반산업단지

율촌 제Ⅰ일반산업단지(이하 '율촌Ⅰ산단')는 총 9.17㎢ 규모로 개발하고 있으며, 1994년 착공 이후 금년 5월까지 공정율 89%로 산단조성 8.0㎢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0.92㎢를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분양률은 80%로 분양대상면적 6.16㎢ 중 4.88㎢가 분양되었으며 2015년까지 조성사업 및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율촌Ⅰ산단은 주변에 형성된 산업단지의 장점과 쾌적한 배후여건, 풍부한 전력과 용수, 완벽하게 구비된 도로 교통망,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거점 허브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

율촌 제Ⅱ일반산업단지

율촌Ⅱ산단은 해양수산부 광양항 유지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건설 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율촌Ⅱ산단은 2020년까지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에 총사업비 9,269억원을 투입하여 3.79㎢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0년 7월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컨테이너 부두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10~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유치업종은 기계, 전자·전기산업, 기계산업, 비금속광물 등이며 순산업용지의 76%에 대해 입주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9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사업참여의향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특수목적법인 율촌 제2산업단지개발(주)를 설립하였고 2013년 4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율촌 제Ⅲ일반산업단지

율촌Ⅲ산단은 여수시 율촌면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율촌Ⅰ·Ⅱ산단의 중간지역으로 Ⅰ·Ⅱ산단 활성화 후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율촌Ⅲ산단은 2016~2020년까지 총사업비 13,555억원을 투입하여 9.76㎢를 조성해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학물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보장, 율촌자유무역지역

율촌1산단 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0.34㎢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13년 5월 현재 6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화물의 보관·하역뿐만 아니라 집·배송, 가공, 조립 등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함으로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망

· 도로 : 호남, 남해고속도로에서 7.0km 거리, 순천 - 완주간 고속도로 4.0km 거리
　　영암 - 순천간 고속도로 3.0km 거리, 국도 17호선대체우회도로 인접
· 철도 : 율촌역(전라선)에서 5.0km 거리
· 공항 : 여수공항에서 6.0km 거리
· 항만 : 율촌1산단 전용부두 : 2선석(2만톤급 잡화부두, 3만톤급 철재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 29선석(50,000톤급), 5선석(20,000톤급)

풍부한 용수

· 주암댐(7억톤)계통 광역상수도에서 39,000㎥/일 공급

다양한 원자재

· 세계최대의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제품 생산 공급
·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 합성수지 등의 기초소재 생산
· 풍부한 부존자원(고령토, 규사, 규석 등) 생산

우수한 산업인력

· 광주, 전남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연간 45천명의 고급인력 배출
· 실업계 고교, 전문직업훈련소, 사설직업훈련소에서 연간 20천명의 기능 인력 배출
·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센터 운영

주변 산업단지

· 광양국가산단(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삼일자원비축 산단(유류 등 공급)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물류, 원자재 등 반·출입)

철강, 석유화학 등 최적의 산업 Cluster 구축 율촌지구

율촌자유무역지역 잔여 공장부지 입주 희망업체 모집공고

율촌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잔여 자가 공장부지에 대한 입주 희망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253(율촌제1산단내)
- 총 면적 : 343,644㎡(자가공장 268,713, 공공시설 52,801, 공원 22,130)
- 부지 공급방식 : 공장부지 조성완료 후 장기 임대(50년 * 연장가능)
-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임대부지 현황

- 자가공장부지 면적 : 268,713㎡
  - 기 입주면적 : 102,061㎡
  - 잔여면적 :　166,652㎡(24필지)
- 임대료 : 월40원/㎡

입주자격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입주제한 업종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 공해발생업종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등)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우선 입주허가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비율 20%이상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51%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자

중점 유치 입주업종

○ 철강산업(제1차 금속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계조립금속산업, 비금속광물산업
○ 신소재 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

입주수요 신청

○ 입주수요 신청기간 : '13. 6. 5(수) ~ 6. 28(금)(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담당자 : 정석호 주무관 061) 727-9793, FAX : 061) 725-0005)
○ 신청서류 : 입주 수요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1 참조)
- 신청서상의 실적, 입주자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선정 관련 설명자료(제품설명서, 제조공정, 배출오염물질 등)첨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www.ftz.go.kr/yulch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번기철 일손부족 농가 방문, 매실수확 지원
(2013.06.14)

GFEZ, 해양플랜트전문기업 3개사와 MOU체결
(2013.05.28)

전남도 경제부지사 방문
(2013.05.15)

GFEZ와 광양시 상생·화합 간담회 개최
(2013.05.03)

GFEZ, (사)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투자 업무협약 MOU 체결
(2013.04.29)

광양항 경쟁력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2013.04.25)

하동지구 해양플랜트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013.04.19)

GFEZ·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주)리테크 MOA체결
(2013.04.16)

생태와 문화 체험의 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4. 20 ~ 10. 20 / 순천만일원

발행일 2013년 06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 희 봉
http://www.gfez.go.kr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T.061)760-5114